국민의 내형을 위한 청부에서 정부	보도자료	작성과	정부24운영팀	주민과
	2018년 11월 23일(금) 조간 (11.22. 12:00 이후)부터	담당자	과장 조성하 사무관 이선희 주무관 이응구	
행정안전부	버드됬어 즈시기 비라 마	연락처	02-2100-4219 02-2100-4169	02-2100-3830 02-2100-3842

## 전입신고, 이제 '정부24'에서 쉽게 하자

- 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실시 -

- ▶ 살다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 신고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 성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으로 신고할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 ▶ 전입신고를 할 때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하는 '합가', '세대 구성', '세대 편입' 같은 용어들이 어려워서, 또는 세대주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 르겠다고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도 500건에 이른다.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1일 23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 (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 그런데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 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되어 반려 또는 취소되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 되도록 개선하였다.
  - \*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 완료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에게 확인 등
-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하였다.
- □ 한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 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국내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로 시행('17.12)이후 신고건수 1.600여 건
- □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 차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지금까지 국민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1

## 新・舊 온라인 전입신고 비교

\* 개선 방향: 법령(서식) 개정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개선

개선사항	현행	개선
쉽고 간편한 신청절차	법정서식을 그대로 구현	<b>문답식의 쉬운 용어</b> 사용과 <b>몇 번의 클릭만</b> 으로 신청
전출·입 구분 자동화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행정 용어*를 직접 선택 * 세대구성, 편입, 합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b>유형별로</b> <b>분석하여 자동화</b>
편리한 세대주 확인	공인인증서로만 세대주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b>전입지</b> <b>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b> 가능
세대주 변경 동시처리	세대주 변경 동시처리 불가	신고와 <b>동시에 세대주 변경</b> 가능
안내 강화	처리과정 SMS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관 고지 및 SMS 문자 안내 강화, 신청 유형별로 <b>맞춤형 안내</b> 메시지
불필요한 항목 최소화	유의사항 체크 8회	<b>간단 명료</b> 하게 안내하고, 체크는 <b>1회</b> 로
	불편한 텍스트 수기 입력	클릭으로 쉽게 입력
가독성 강화	딱딱하고 사무적인 화면	<b>깔끔하고 편안한</b> 화면 <b>디자인</b>



## 新‧舊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화면 비교

